

주택시장은 침체, 신규 청약은 후끈

사랑방, 올 상반기 분양시장 분석

2천982세대에 5만5천839명 접수 “고분양가로 내 집 마련 멀어지나”

올 상반기 광주지역 주택 분양시장에 5만6천여명이 몰렸다.

‘거래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매매시장과 달리 신규 분양 물량은 수십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 1순위 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데다 전매제한 기간도 짧고, 대출한도가 높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광주·전남 부동산 포털 사랑방 부동산(home.sarangbang.com)이 광주지역 청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6월 광주에

서는 모두 8개 아파트와 3개 오피스텔 등 11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다.

조합원·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2천982세대(아파트 1천568세대·오피스텔 1천414실)의 일반 공급 청약접수에 총 5만5천839명이 참여해 평균 경쟁률 18.73대 1을 기록했다.

아파트 평균 경쟁률은 34.57대 1로 높은 반면 오피스텔은 1.16대 1로 낮은 편이었다.

240세대의 청약 신청을 받은 화정 아이파크 1단지 1만6천30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7.94대 1을 기록했다. 2단지도 193세대 분양에 1만2천956명이 접수하며 67.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마감했다.

광주 남구 반도유보라는 평균 경쟁률 51.19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이곳은 84A㎡ 25세대 모집에 3천561명(해당지역)이 몰려 142.44대 1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단일 경쟁률로는 올 상반기 광주지역 최고 수치다.

이 밖에 수완 센트럴시티 서희스타힐스 25.25

대 1(40세대), 주월 대라수 어썬비릿지 15.59대 1(68세대), 용봉동 한국아텔리움 비엔날레 2차 11.63대 1(51세대),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6.85대 1(503세대) 등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아파트 중 역대 최고 분양가로 관심을 끈 빌리브 트레비체는 117세대 공급에 605명이 청약 접수를 해 5.17대 1로 1순위 마감했다.

최현웅 사랑방 부동산 팀장은 “올 상반기 입지 여건과 브랜드 파워 등을 앞세운 신규 아파트의 인기가 두드러졌다”며 “하지만 최근 고분양가 단지가 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 지진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 가운데, 올 상반기 인터넷 청약접수에 나선 광주지역 오피스텔 3곳 중 2단지만 1순위 청약접수를 마감했다. 이마저도 1.91대 1, 1.59대 1에 그쳤다. 나머지 1곳은 468실 모집에 단 9명만이 신청하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한전KDN은 12일 나주시와 농업활성화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KDN-나주시, 농업활성화 MOU

전통 농업 분야에 ICT접목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12일 나주시와 농업활성화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신재생에너지 융합 노지형 스마트팜’ 공동 추진을 통해 정부의 스마트팜 확산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이행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스마트팜을 개발하는 등 전통 농업 분야에 ICT접목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융합

노지형 스마트팜 추진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행정적 지원 ▲관련 시설 및 장비, 업무성과 등 공동 활용 ▲양 기관 보유는 기술 공유 및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에너지 ICT 기술이 나주시의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고, 지역상생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상생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철기기자 dools18309@srb.co.kr



광주전남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대표 등 500명을 초청해 제조혁신 사례와 스마트공장 구축 벤치마킹 교육을 실시했다. 삼성전자 제공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CEO 교육

삼성전자서 ‘제조 혁신’ 투어 품질 등 생산 관련 노하우 전수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대표 등 500명을 초청해 제조혁신 사례와 스마트공장 구축 벤치마킹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대기업의 혁신 사례를 중소기업 대표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제조 현장투어와 ‘상생형 스마트공장 혁신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제조현장 투어에서는 삼성전자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현장을 개선한 사례들을 소개했으며, 특히 삼성전자의 모듈생산방식(MPS) 공정은 참석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었다.

삼성전자 김중호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은 특강을 통해 경영혁신과 바람직한 스마트공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강을 들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특히 품질혁신과 생산계획 관련 노하우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혁신적인 원가절감을 한 삼성캐스터, 금형기술 전수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한 천일금형사, 정량투입 및 컨베이어 속도조정 자동화를 통해 획

기적으로 불량률을 감소한 쿠키아 등의 스마트공장 도입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강병영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삼성전자 광주공장 방문은 참석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기업의 제조혁신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추진방향을 새롭게 가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스마트공장 구축업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여업체의 86%가 만족했으며, 작업환경 개선(47.8%), 생산성 증가(41.2%), 생산공정 개선(33.3%), 불량률 감소(30.4%) 등이 세부적인 성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한국농어촌공사, ‘기후변화 적응’ 잘했다

환경부 장관상 수상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2일 2019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 추진관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성과발표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동안 농업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를 통해 농업종사자에게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수립자에게는 기후변화 현실을 반영한 과학적 정책수립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 적응대책 이행 및 평가를 통한 공사 고유 업무를 평가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농촌형 제로에너지 구축사업 등 농어촌에서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도철기기자 dools18309@srb.co.kr

광주뷰티산업, ‘코스메디케어’로 발전

광주TP 등 정기포럼 개최

광주시는 12일 광주뷰티화장품산업진흥회 주관으로 화장품 산업의 의료와 의약품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산업화 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전일승 광주뷰티화장품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한 80여개 회원사와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대병원,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이 참석해 광주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

광주시가 특화해 집중 육성중인 코스메디케어 산업은 화장품에 의약품 접목한 유망산업으로, 일반 화장품 대비 50~500%까지 부가

치를 높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번 정기 포럼은 광주 화장품산업에 생체적합한 검증된 효능의 의약품분을 화장품 및 의료산업과 접목한 코스메디케어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해 참여해 이들 기관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광주테크노파크 김성진 원장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코스메디케어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니어코스메디케어실증센터구축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광주뷰티 산업이 조만간 K-뷰티 선봉장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광주창조혁신센터, 우수창업기업 집중 지원

12개 기업에 최대 5천만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는 12일 지역 내 성장잠재력이 높고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19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혁신센터는 지난 5월 광주 지역 우수창업 기업을 모집했으며, 124개 신청기업 중 사업아이템의 우수성과 적절성, 사업화 가능성, 사업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12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일

정, 사업비 관리규정 안내와 함께 창업기업 간의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사업은 광주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우수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최대 5천만원과 함께 창업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투자유치, 멘토링, 시제품제작 등)을 지원받는다.

박일서 혁신센터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내 우수 창업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국립광주과학관, 19일 ‘필 사이언스’ 포럼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에서 ‘글로벌 환경이슈와 과학문화’를 주제로 한 ‘제9회 필 사이언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각종 질병 등 점점 가속화되는 환경이슈들이 우리 삶과 미래에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학원 가진대교수(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가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신웅진 광주전남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재영 광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한식 전자신문 기자, 노희옥 광주그린카진흥원 전략기획부장 등 기상청, 환경운동연합, 언론계, 산업계 관계자 초청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해남 마을기업, 아세안 시장 진출

땅끝햇살찬, 800만달러 양해각서 “전남중기진흥원 지원 큰 도움”

해남지역 대표 마을기업인 땅끝햇살찬 영농조합법인(대표 정대웅)이 아세안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땅끝햇살찬 영농조합법인은 2013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래 냉동 고구마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고구마 양갱이, 애견간식용 고구마말랭이 등 고구마를 원료로 한 독특한 제품을 꾸준히 개발·출시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전남중소기업진흥원(원장 우천식)에 따르면 지난 10일 진흥원 회의실에서 땅끝햇살찬 영농조합법인이 필리핀법인인 FIL-FRESH Inc에 3년간 800만달러의 고구마 원재료 및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

로 하는 땅끝햇살찬과 FIL-FRESH, 진흥원 간 3자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땅끝햇살찬 영농조합법인은 양질의 고구마 원물과 냉동고구마 등 가공식품을 선별해 FIL-FRESH INC에 공급하고 제품 개발, 현지공장 설립, 마케팅 및 제품판매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정대웅 대표는 “그동안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해 왔다”며 “진흥원과 전남FTA활용지원센터의 세심한 사전 준비 및 지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땅끝햇살찬 영농조합법인은 2013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2015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진흥원 산하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부터 사업비와 상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의 지원을 받아왔다.

진흥원은 양자 간 거래 성사에 필요한 지원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중소기업진흥원과 땅끝햇살찬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0일 진흥원에서 필리핀 식품제조·무역업체인 FIL-FRESH Inc와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천식 원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목포시 수산식품업체들의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시장개척단 파견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 전남지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데 힘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